

보도시점 2026. 6. 18.(목) 12:00 배포 2026. 6. 18.(목) 09:00
(2026. 6. 19.(금) 조간)

한-아세안 AI 협력의 결실, 인도네시아에 고성능 컴퓨팅(HPC) 인프라 개소

- 고사양 AI 인프라 환경이 부족한 아세안 국가들을 위해 아세안 사무국이
소재한 인도네시아 내 HPC 인프라의 성공적 구축

【관련 국정과제】 23. 국제협력을 통한 'AI 기본사회' 공동 실현
120.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+ 외교 강국 실현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, 이하 '과기정통부')와 외교부(장관 조현)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(원장 이석, 이하 KISTI)과 함께 한-아세안(ASEAN) 디지털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고성능컴퓨팅(HPC*) 인프라 구축 협력사업의 완료를 기념하며, 인도네시아 연구혁신청에서 공식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.

* High Performance Computing

동 사업은 한-아세안협력기금(AKCF)의 지원('24~'28년 4년 간 총 1천만 달러, 한화 약 147억원)을 받아 2024년 첫걸음을 내딛은 이후 약 2년여간 한국의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력과 고성능컴퓨팅 구축·운영 노하우를 아세안과 공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사업이다.

고성능컴퓨팅 인프라는 대규모 데이터 분석과 초거대 AI 모델 학습의 필수 기반이 되는 핵심 자원이나, 태국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 회원국은 고성능컴퓨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. 이번에 구축되는 인프라는 약 4.2PF*급의 고성능 슈퍼컴퓨터로, 이번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아세안 지역의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이끌어갈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페타플롭스(PetaFLOPS, PF): 컴퓨터가 1초당 1,000조 번 연산을 처리할 수 있는 성능 단위

아울러, 현지 운영 인력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 및 기술 교육을 병행(~'28년까지 약 160여명 대상)하고, KISTI가 운영 중인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) 플랫폼을 현지화하여 구축함으로써 아세안 자체적으로 인프라를 운영·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
또한, 이번 사업 전반에 국내의 우수한 HPC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, 국산 AI 반도체 및 보안 기술 등이 대거 반영됨에 따라, 우리 AI·디지털 기업들이 향후 아세안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실적을 확보하게 되었다.

김경만 인공지능정책실장은 “이번 인도네시아 HPC 인프라 개소는 한국의 AI 혁신 역량을 아세안 이웃들과 공유하여 함께 성장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제시한 한-아세안 CSP 비전*을 실천한 뜻깊은 성과” 라며,

아세안 지역 내에서 한국의 디지털 영향력을 한층 높이고, 향후 다자 AI 협력을 주도할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아세안과 기술 교류, 공동 연구 등 사후 협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 고 밝혔다.

* ▲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(Contributor for dreams and hope), ▲성장과 혁신의 도약대(Springboard for growth and innovation), ▲평화와 안정의 동반자(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)

담당 부서	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 인공지능전략팀	책임자	팀 장	상은혜 (044-202-6280)
		담당자	사무관	권화연 (044-202-6284)
	외교부 아세안국 아세안협력과	책임자	과 장	하대국 (02-2100-8451)
		담당자	사무관	현성진 (02-2100-8447)
관련 기관	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국제협력팀	팀 장	이종성 (042-869-0976)

